

소을 제3호증 — 통화 녹취 요지서

제1항 · 2025. 2. 17. [41:04]	
조재현(채권자)	"등기부등본에 제가 100이에요"
제2항 · 2025. 1. 15. [49:08~49:24]	
조재현(채권자)	"저희가 이제 시드를 받았었어요. 이거 처음에 준비했을 때, 30억 밸류로 해서 목표액 1.5억"
이재철(채무자)	"아 지금 이미 투자를 한번 받으셨군요. 시드를."
조재현(채권자)	"그거죠. 엔젤이죠. 아는 지인이니까."
제3항 · 2025. 10. 23. [12:36~13:39]	
조재현(채권자)	"펀딩 그 부모님한테 받은 거예요. ... 최초는 지인이고 그거가 소진되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펀딩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"
제4항 · 2025. 10. 27. [03:29]	
조재현(채권자)	"이거는 지금 그 돈을 다 계속 주면 우리가 런칭하고나서는 런웨이 할 그것도 없고 계속 마케팅이나 다른 그것도 들어가 되는데"
제5항 · 2025. 12. 8. [00:41]	
조재현(채권자)	"정산이 완성이 돼야지 공유가 되죠"
제6항 · 2026. 1. 6. [01:24:54]	
이재철(채무자)	"친한 심사역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"
제7항 · 2026. 1. 6. [44:55~45:54]	
조재현(채권자)	"100%예요. 제 지인이 1억5천 투자한 거는 ... 지분은 100인 거예요. 제 지분에서 5프로니까 ... 우리 주주 명부가 깔끔하게 100% 내걸로 돼 있는 걸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. 사실은. 이거는 딴 사람이나 VC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."

원본 통화 m4a 음원 및 풀 녹취록 전문은 채무자 측에서 별도 보관 중에 있으며, 법원의 보정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합니다.